

올해 설 선물 트렌드는... '가성비vs프리미엄' 양극화

“가성비~프리미엄”...백화점 3사, 명절 수요 공략 식품업계, 가성비 앞세운 선물세트 잇따라 출시 “중이포장에 라벨제거”...올해도 친환경 제품 대세

예년보다 빠르게 다가온 올해 설 명절의 선물세트 트렌드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와 프리미엄' 두가지로 요약된다. 설 선물세트 '평균 실종인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설 명절을 앞두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성비'와 '가성비'를 만족시키는 선물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유통 업계도 실속과 프리미엄을 앞세운 선물세트를 '투트랙'으로 대거 선보였다. 중저가 제품을 앞세워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차별화 되는 맛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자 지갑을 연다는 계산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선물세트도 ‘중간급’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각각의 수요에 맞춰 상품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백화점 3사, 명절 수요 공략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한 백화점 업계는 10만원대 가성비 제품부터 1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해 설 명절 수요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롯데백화점은 올 설을 앞두고 프리미엄 선물 수요를 공략한다. 올해는 1+ 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품목 수를 40% 이상 늘렸다. 대표 상품은 '프레스티지 No.9 특선 기프트(150만원)', '지정농장 명품 혼합 기프트(85만원)' 등이다. 청과 선물 세트는 '프레스티지 한라봉, 배, 사과, 사인 기프트(19만 5000원)', '프레스티지 애플망고, 한라봉, 사과, 배 기프트(16만 5000원)' 등으로 준비했다. 수산 선물 세트는 동원 MSC 인증 참치 혼합 기프트(26만 9000원) 등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실속 선물 세트 수요에 맞춰 10만원대 소포장 한우 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40% 확대 운영한다. 또 프리미엄 선물 수요를 겨냥해 100만원 이상 '초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렸다.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250만원)',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200만원)', '영광 특선 참굴비 매(梅) 세트(15만원)', '현대명품 참굴비 수(秀)세트(350만원)' 등을 프리미엄 라인으로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설 명절을 맞아 10만여개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통원 프리



미엄 삼베제품, 토종꿀, 아카시아꿀 등 겨울 제철 상품을 중심으로 신규 설 선물 물량을 20% 이상 늘렸고 한우도 지난 설 보다 20% 가량 더 물량을 준비했다.

통원 프리미엄 삼베제품(15만원) 발효·긱간 토종꿀(60만원), 명품 제주 옥돔 세트(40만원), 명품 순살 제주 옥돔(60만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프리미엄 그로 서리, 와인·전통주, 홍삼·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식품업계, 가성비 앞세운 설 선물세트 잇따라 출시

CI제일제당은 선물세트 300여종을 선보였다. CI제일제당은 1만~2만원대 제품을 약 10% 늘렸다. 1만원대 '파래김1호'와 1~2만원대 복합세트인 '특별한선택 K-4호', '특별한선택 K-3호' 등으로 가성비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프리미엄 김 세트 '초사리곱장 돌김', '감태김' 세트 등을 선보였다. 기존 김 세트와 차별화되는 맛 품질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인 프리미엄 김 세트는 물량을 약 30% 늘렸다.

동원F&B는 실속 종합선물세트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설에는 건강요리류, 참치액, 국물의 신 참치함말과 카놀라유, 올리브고양 등 구성된 동원 스페셜 65호 등이 대표 제품이다.

대성 청정원은 ▲종합 선물세트인 '청정원 선물세트' ▲캔햄 중심의 '우리팜 선물세트' ▲명절 인기 품목인 '고급우 선물세트' ▲캔햄과 유지류를 함께 담은 '팍고급우 선물세트' ▲다양한 종류의 김의 '재래김 선물세트' 등을 선보였다.

하림은 ▲프리미엄 냉동 간식세트 ▲고품격 보양 국장세트 ▲프리미엄 신선 가정간편식(HMR) 세트 ▲저지방 햄&요리용 육수세트 등 4가지 카테고리에 맞



춰 설 선물세트 수요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중이포장에 라벨제거까지”...올해도 친환경 제품은 대세

백화점 3사를 비롯해 식품기업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번 설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일반 한우보다 탄소 배출량이 65% 적은 '저탄소 한우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보랭 가방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 청과·수산에 이어 견과 선물 세트에도 종이 펄프를 사용하고, 부자재 사용은 최소화했다.

현대백화점은 종이 소재 과일 선물세트 2만5000세트를 마련했다. 와인 포장도 재활용이 쉬운 종이 소재로 교체하고, 명절 선물세트 포장용 보냉백으로 페플라 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리유저블백을 사용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 디자인팀이 직접 참여한 친환경 패키지를 설 선물세트에 적용했다. 자연 생분해 되는 사탕수수 100% 햄퍼 박스에, 와인부터 신선·가공 식품을 고객이 취향껏 포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I제일제당은 '세이프 어스 초이스'를 선보였다. 세이프 어스 초이스는 비닐 라벨을 제거한 '스팸 라벨프리 선물세트'와 플라스틱 받침(트레이)을 넣지 않은 'CI 명가김 선물세트' 등으로 선보였다.

동원F&B는 친환경 소재인 '페이퍼 프레스(Paper Press)'를 도입한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한편내부의 플라스틱 받침과 부직포 가방을 종이로 대체한 올페이퍼 패키지 선물세트도 지난 추석 대비 10배 이상 물량을 확대 운영한다.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와 캔햄의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국제산림관리협회(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특수 트레이 및 케이스를 제작한 30여종의 'ECO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뉴스스

편의점 '다이아·벤츠車' 초고가 선물세트 판매경쟁...“정말 살까?”

3.27 캐럿 다이아몬드와 벤츠·BMW 수입차 등 구성 “실제 판매 안되는 경우 많아, 홍보 효과 더 기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도 편의점 업계가 '초고가 선물세트'를 쏟아냈다. 2200만원에 달하는 와인부터 다이아몬드, 골드바, 고급 수입차 등으로 품목도 다양해졌다.

편의점 업계가 명절마다 초고가 선물세트를 내놓는 것은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독특한 상품으로 눈길을 끌어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GS25는 올해 설을 맞아 900만원에 달하는 컬트 와인 '샤프르팡 2014'를 선물세트에 판매한다. 컬트 와인이란 소량 생산되는 품질이 높은 와인을 뜻한다. 샤프르팡은 대표적인 컬트 와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계묘년을 맞아 황금토끼 골드바와 코인도 함께 선보였다. 황금토끼 골드바는 2돈, 3돈, 5돈, 10돈 등 네 종류로 구성했다. 황금토끼 코인은 3돈, 5돈, 10돈 3종이다. 골드바와 코인 가격 모두 최고 371만원대에 달한다.

이마트24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메르세데스-벤츠·BMW 수입차 등으로 선물세트 상품군을 구성했다.

다이아몬드는 국내 최대 보석감정원 '우신'이 감정하고 인증했다. 3.27 캐럿 다이아몬드 가격은 5990만원이다. 컬러는 F이며, 투명도는 SI1, 커팅은 트리플 EX로 최상급에 해당하는 스펙이다. 매장에 비치한 카탈로그로 바코드를 찍어 결제

하면 전문요원이 보안차량으로 제품을 배송해준다.

유명 수입차 구매 플랫폼 '카비'와 함께 벤츠 E클래스 및 BMW 5시리즈 고급 수입 중형차 판매에도 나섰다. 편의점 업계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금과 할부 구매 뿐 만 아니라 리스·장기렌트까지 결정해 이마트24에서 예약 접수할 수 있다.

CU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3종을 선물세트에 공개했다. 가장 비싼 모델인 에어 포스윈의 가격은 1억2000만원이다. 이 외에도 프라이미(7430만원), 씨티(8880만원) 등을 함께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2200만원대 레이와인 세트를 내놓았다. 유명 와인 생산지 프랑스 보르도의 '샤프 2017 빈티지'로만 구성했다. 전 세계 최고가 와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샤프 페트뤼스 2017' '샤프 오브리옹 2017' '샤프 오존 2017' 등 9가지 희귀 와인으로 한 세트를 꾸린 것이다. 해당 세트는 단 3개만 한정 판매한다.

편의점 업계는 최근 명절 시즌마다 경쟁적으로 초고가 선물 세트를 선보이는 추세다. CU는 지난해 추석 최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이동형 주택을 공개했다. 2021년 추석엔 최고 9억6000만원대 요트를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 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해당 편의

점 4곳 중 두 곳은 초고가 선물세트에 내놓은 상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GS25의 토끼 골드바는 152개 판매됐다.

이런 성과에도 편의점에서 초고가 선물세트를 출시하는 것은 홍보 효과 때문이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이색 상품을 통해 편의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겠다는 목적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초고가 선물세트가 매장에서 팔렸을 때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팔리지 않더라도 독특한 이슈로 해당 업체와 편의점이 누리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설 선물세트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만 판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아직 많다”며 “편의점도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만 셴”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m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